

광주 G-유니콘 기업, 투자·매출·고용 '급성장'

1년새 투자 120억·매출 277억...시 스케일업 지원 효과 AI·바이오·수소분야 등 5개사 창업 성장모델 자리매김

광주시가 육성 중인 '지(G)-유니콘 기업'들이 투자 유치와 매출 증가, 고용 창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지역 창업 생태계의 대표 성장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G-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된 5개 기업이 1년 만에 총 120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기업의 총 매출액은 277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기업별 평균 매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231%에 달했다. 성장세는 고용 확대로 이어져 총 51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

'G-유니콘 육성프로그램'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창업기업을 선발해 사업화 자금과 기술 고도화, 투자 연계, 세계시장 진출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광주시의 대표 스케일업 정책이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실증과 투자까지 연계하는 성장 사다리형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선정 기업은 아이메디텍, 베슬 에이아이코리아, 바이오컴, 에스티에이치, 파인트코리아 등 5개사다.

아이메디텍은 중재시술용 나노섬유 지지체와 제조장치를 개발해 기술 안정성과 유효성 평가를 마쳤으며, 지난해 매출 약 67억원을 기록했다. 미국과 중국 기업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베슬에이아이코리아는 생생형 인공지능(AI) 개발·운영을 위한 AI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공·금융 분야 실사용 사례를 확보했다. 국내외 특허 11건을 보유하며 AI 인프라 분야 기술 경쟁력을 강화했다.

바이오컴은 온디바이스 AI 에이전트 기반 개인 맞춤형 대사이상·비만관리 솔루션을 고도화해 지난해 매출 약 123억원을 달성했다.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완료하며 추가 성장 재원도 확보했다.

에스티에이치는 수소연료전지용 고내구성 탄소 담지체 및 촉매 기술을 개발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보유 특허 2건을 이전받아 기술 신뢰도를 높였다. 해외 기업과 기밀유지협약(NDA) 3건을 체결하며 글로벌 협력 가능성도 확대하고 있다.

파인트코리아는 수요 맞춤형 의료용 생분해성 복합소재를 개발해 신규 소재

2종을 확보했으며, 인허가를 위한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7건을 통과해 상용화 기반을 마련했다. 중국 위고그룹과 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중국 시장 진출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2023~2024년 선정된 기업들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G-유니콘 기업' 개방형 혁신 전략을 통해 HD현대사호, 나이스정보통신 등 대·중견 기업과 실증(PoC)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코스닥 상장, 미국 지사 설립, CES 연속 수상 등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15개 기업을 'G-유니콘'으로 선정해 사업화 자

금과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초기 창업기업 발굴부터 실증, 투자, 세계 진출까지 단계별 연계를 통해 지역 유망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망 기술기업 발굴을 통해 '광주형 유니콘' 육성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영걸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G-유니콘 육성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창업기업들이 기술 고도화, 매출 증대, 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유망 기업이 세계적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전남 전문건설 2년 연속 실적 급감

전년비 18%↓ 2조3639억·15%↓ 4조2839억 건설경기 침체에 자재비·인건비 변동성 확대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 전문건설업체의 공사 실적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광주 전문건설업체 1334개 사가 신고한 2025년도 기성실적 총액은 2조36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2조8849억원 대비 18% 감소한 수치로, 2023년(3조2037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실적이 크게 줄었다.

도급 형태별로 보면 원도급공사 실적은 4661억원으로 9.3% 감소했으며 하도급공사 실적은 1조8977억원으로 19.9% 감소해 하락 폭이 더 컸다.

특히 광주지역 실적 부진은 같은 기간 부산(-11.7%), 대전(-7.9%), 경기(-10.5%), 충북(-3.5%), 충남(-5.0%) 등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번 감소는 단기 요인보다 건설경기 침체의 장기화가 누적된 결과로 분석된다.

민간 주택·개발사업의 위축과 착공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부문 역시 발주 물량이 기대만큼 확대되지 못하면서 전반적인 수주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자재비·인건비 변동성, 금융비용 부담, 미분양 장기화에 따른 시행·시공사의 보수적 투자 기조가 겹치며 경쟁 진행 속도와 발주 자체가 둔화된 점도 실적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도급공사 실적의 큰 폭 감소는 종합건설사의 유동성 악화와 공사 물량 조정여 현장 하도급 물량 축소로 직결된 영향이 크다는 평가다.

업체별로는 총 1095억원을 신고한 ㈜지형건설(대표이사 이형연)이 1위를 차지했으며 633억원을 신고한 ㈜동호(대표이사 양희갑·박장우), 587억원을 신고한 ㈜서광이엔씨(대표이사 양희석)가 뒤를 이었다.

박병철 광주시회장은 "실적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지역 건설현장의 일감이 줄어드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경고"라며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버틸 수 있도록 공공 발주 확대와 적정공사비 반영, 불공정 하도급 개선,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협회가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3969개 업체가 신고한 지난해 기성실적 총액은 4조2839억원이었다. 전년 5조3889억원 대비 15% 줄어든 수치로, 2023년(5조1066억원) 이후 2년 연속 감소세다.

원도급은 1449억원(8.6%), 하도급은 6132억(17.3%) 각각 감소했다.

도양기업이 총 2637억원을 신고해 14년 연속 실적 1위를 기록했고 수성건설(631억원), 신진건설산업(60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강성진 전남도회장은 "공공 발주가 축소되고 민간 건설경기가 침체했지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회원사 이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지방국세청은 23일 익산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익산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김학선 광주국세청장, 익산상의와 현장 간담회

경제위기 극복방안 논의...맞춤형 세정 지원 약속

광주지방국세청은 23일 익산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익산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부 예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국세청은 세정지원 제도, 기업 경영 시 유의사항, 기업승계 지원제도 등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부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고 지역 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예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원익 익산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 기업들은 인력 채용과 물류비 등 이 미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기술어린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학선 광주국세청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는 상공인분들께 깊이 감사

드린다"면서 "건의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세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 이어 양 기관장은 지역 대표 기업인 하림 공장을 방문해 생산라인을 살펴보는 등 기업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한편 광주국세청은 이날 익산상의의 내에 별도 상담장구를 설치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과 기업승계제도를 안내하고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국세청, 10만곳 법인세 납기연장 '이지없이 3조 유동성 지원 효과'

12월 결산법인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 10만곳에 납부 기한을 3개월 늦춘다. 총 3조원을 이자 없이 융통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세청은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인세 신고·납부 일정과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중 작년 12월 31일 사업연도가 종료된 118만곳이다. 전년 대비 3만곳 늘었다.

다만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신고하는 연결납세 적용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 중 감사가 끝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신고해도 된다. 단 이 기간에 대한 이자(연 3.1%)는 추가로 내야 한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은 내달 31일에, 나머지는 4월 30일(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50%는 내달 31일에,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4월 30일(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내면 된다.

연합뉴스



(왼쪽부터) 영규소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택 동구청장, 김지훈 광주은행 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총 12억 규모 공급...업체당 최대 5년간 2000만원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최근 광주 동구청에서 임택 동구청장, 김지훈 광주은행 부행장, 영규소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5000만 원을 별도로 출연하고, 해당 출연금을 재원으로 광주신보는 총 12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동구청은 1년간 5.3%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 대

출 기간은 최장 5년이다.

광주은행은 동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총 3억 8000만원을 특별출연해 총 105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 바 있다.

김지훈 부행장은 "이번 특례보증은 경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은행의 책임을 다하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과 상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 강진청자축제서 한돈 판촉행사

삼겹살·목살 등 25% 할인

농협 전남본부는 23일 강진군의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강진청자축제 현장에서 한돈 소비 촉진을 위한 무료 시식 및 할인 판매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농협 전남본부와 강진완도축협이 공동 주관했으며, 축제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한돈의 우수한 품질과 가치를 알리고 소비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과 김영래 강진완도축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할인 판매는 다음달 2일까지 진행되며, 삼겹살과 목살 등 한돈 인기 부위를 시중가 대비 25%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또한 현장에서는 무료 시식 행사를 병행해 관람객들이 한돈의 풍부한 맛과 품



농협 전남본부는 23일 강진군의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강진청자축제 현장에서 한돈 소비 촉진을 위한 무료 시식 및 할인 판매 행사를 가졌다.

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한 소비 위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돈의 안전성과 체계적인 품질 관리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생산 농가의 정성이 담긴 한돈이 소비자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동심협력(同心協力)의 마음으로 축산 농가가 존중받고 안정적인 소득 증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